칼 럼 Column

협회 회원의 권익과 협력은 참여에서 시작된다

사서의 권익이란 무엇인가,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숙고해 본다.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서 협회가 '회원' 의 '권익' 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협회 권익협력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회원'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가 권익과 협력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연합체이다. 다시 말해 협회는 회(會)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도서관이나 개인들이 모인 조직체이다. 이때 참여는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도서관협회 회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도서관협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회원들은 얼마나 될까? 물론 가입할 때에는 제대로 챙겨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협회 회원인 도서관이나 개인들은 과연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나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하고 있을까 되돌아 볼 일이다. 왜냐하면 협회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주인이며, 협회 활동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회원들에게 '권익'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회의 주인으로서 회원들이 자기 위상을 제대로 확인할 일이다. 가끔 협회 회의에 참여하다보면 어떤 의논 끝에 '이제는 협회에서 담당해서 하고..' 하는 식의 발언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이 때 '협회' 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무국' 에서 맡아 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협회의 실제적인 일은 사무국이 해야하겠지만 그 일의 방향을 잡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고 지원하고 제대로 되도록 챙기는 것은 바로 우리 회원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그럼 '권익'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무엇이 한국도서관협회 회원의 권리와 이익인가? 만일 회원인 도서관과 회원인 사서직원간에 입장이 다른 이슈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협회가 어떤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 입장을 따르는 것이 회원의 '권익' 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될까? 모든 이슈들에 대해 우리 회원들의 입장이 다 일치한다면 협회는 그 입장에 따르면 그것이 회원의 '권익' 으로 나타날 것이

문 영 철
협회 권익협력위원장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부관장
moonyc@yonsei.ac.kr

다. 그러나 회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럴 경우에는 회원들의 입장을 하나의 결집점으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동안 협회가, 아니 사무국이 이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늘 많은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에 대한 구체적 모습과 그를 얻기 위한 방향과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회원들도 활발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설사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수 있는 것이라도 회원들이 함께 합의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그것은 이제 '나' 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명확한 '권익' 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다음 해야 할 일은 협력이다.

협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단결된 회원에게서 나온다. 합의된 목적과 목표에 모두 합심하여 동참하는 단결된 회원들이 없다면 그 어떤 조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때로 전체의 권익을 위해 일부 회원들에게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명의 회원도 낙오하지 않고 일심으로 목표를 향해 단결할 때 협회는 비로소 회원의 '권익' 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협회는 '회원' 의 '협력' 으로 '권익' 을 확보할 수 없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가 협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인이 되고, 모두를 위해 나 하나를 낮추면서도 나 하나가 모두가 되는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비로소 회원의 '권익' 을 쟁취할 수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을 했다.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도 무려 1천여명의 회원들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의 웅장한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마침 이번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은 물론 행정기관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참여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서관계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통해 국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과 도서관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었다. 만일 겨우 1~2백명이 모였다면 어땠을까? 결국 협회는 회원들의 '참여' 와 '협력' 이 있어야 '권익' 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지향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협회' 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권익협력위원회가 회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모두의 '권익' 을 지켜내는 협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